

피아노로 맺은 20년의 '하모니'



전남대 피아노 전공 동문들이 모인 광주 C·N PIANO가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오는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되는 '피아노, 삶에 스며들다' 공연 장면. <광주 C·N 피아노 제공>

전남대 사범대·예술대 동문 모임 '광주 C·N PIANO' 20주년 공연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8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와 타악 협연

전남대 사범대학·예술대학 피아노 전공 동문들이 모인 '광주 C·N PIANO(회장 김은애-이하 CN)'가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들은 정기연주회 38회를 포함해 피아졸라 서거 30주년 기념공연, 쇼팽의 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민과 소통해 왔다.

광주 C·N PIANO(Chonnam National University PIANO)가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피아노, 삶에 스며들다'를 오는 29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8명의 피아니스트가 '씨앗을 심다', '썩을 티무다' 등 4개 주제로 선율을 들려준다. 타악 협연에 팀파니스트 오미정(타악양상블 META 음악감독), 밝은 분위기의 열가 곡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막을 연다. 단순한 클래식 음악을 넘어 영국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이 곡은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 사용하기 위해 작곡됐다.

주로 졸업식이나 국가 행사 및 기념식에서 연주되며, 제목에 포함된 'Pomp'라는 단어는 세익스피어 희곡 '오델로' 중 3막 3장의 대사에서 차용했다.

웅장한 멜로디와 서정성, 영국의 전통과 자부심에 대한 상징적 요소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4대 피아노 16 핸드 버전으로 김경혜, 이지은, 윤상아 등이 연주.

이어지는 이주혜의 '애니메이션 메들리 환상곡'은 김연, 함지연, 최선희 등이 들려준다. 김은애 회장은 "순수한 애니메이션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꿈 많은 대학시절을 환기한다"는 복안이다. 인어공주와 피노키오, 겨울왕국 및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에 삽입됐던 히사이시 조의 노래 등을 만날 수 있다.

교정을 거닐던 CN 회원들의 과거를 연상시키는 스페티나 '나의조국 물다우'는 이현주 외 3인이, 로시니의 오페라 '도독까치' 서곡은 최지숙 외 7인이 선사한다.

그중 1875년 초연에 성공을 거뒀던 '도독까치'는 은그릇을 훔쳤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어느 하녀의 이야기를 다룬다. 체코의 보헤미아 중앙부를 지나 프라하로 흐르는 블타바 강을 악상에 담아, 조국에 열망을 투사했다.

피아노와 함께 열정을 불태우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열망은 베토벤 교향곡 '운명'으로 구현된다. 베토벤 작품 중에서도 형식미와 구성력 측면에서 치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이 곡은 '암흑에서 광명으로'라는 드라마틱한 악곡 구성이 돋보인다.

이기미, 최유진 등 김은애, 박은정 등이 연주하는 글린카의 노래 '무슬란과 루드밀라 서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사악한 난쟁이 마법사에게 납치당한 루드밀라를 구출하는 왕자 무슬란의 결혼성공기로,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와 사랑을 주제로 담았다.

끝으로 김수아가 리듬과 화성에 변주를 준 '두꺼비 변주곡'과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한민족의 전통적인 한과 흥을 표현하며, 드보르자크 가곡 '어머나가 가르쳐주신 노래' 등을 삽입해 절묘한 조화를 추구한다. 신성경, 김경희 등이 연주.

김은애 회장은 "창단 2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타악기와 함께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연탄곡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확장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온 음악적 여정을 무대화한 이번 공연이 단원들에게 큰 의미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도시 소음도 음악이 되는 '매직'

타악연주자 김민철, 두 번째 독주회 29일 광주 서빛마루문예회관



풀무와 심벌, 망치 등을 활용한 독특한 리허설 장면. <김민철 제공>

랜드스케이프(조경)를 모방한 조어인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음경관)는 자연이나 인공음을 제어해 만들어 낸 소리를 뜻한다.

사운드스케이프를 주제로 한 타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광주비엔날레 주제('판소리-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주목을 끈다.

타악연주자 김민철이 두 번째 타악 독주회 'SOUND SCAPE'를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연다. 음경관을 주제로 불입형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조합을 모색하는 공연이다.

김민철은 "지오폰니(geophony)라 불리는 자연의 소리, 도시소음 등의 총체가 사운드 스케이프"라며 "이번 공연은 인간에 의해 생성된 소리부터 언어, 산업 기술로 발생하는 기계적 소리 등 다양한 음향을 모티브 삼은 창작곡으로 구성했다"고 했다.

첫 곡 'SIGNAL'은 북과 팀파니를 통해 만드는 진동음으로 비, 열매껍질 등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자연의 음향을 인간이 왜곡시키는 '균열의 시그널'을 만들어 낸다.

이어지는 'DAMAGE'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인위적인 에너지와 자연 파괴를 소리로 다룬다. 풀무와 슈르티 박스를 활용, 인위적인 '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묘사한다. 인간이 발하는 열은 빠르게 변화해 온 산업과 자연환경을 빚든 은유적 장치들이다.

끝으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물을 노래하는 'DANGEROUS'도 울려 퍼진다. 이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 사설을 활용해 동식물이 불씨를 일으키는 모습을 그렸다. 해외 전통악기인 디저리두, 풍가, 하모니움 등을 통해 '인간이 가진 것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곡이다.

전남대 국악학과 박사과정생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강의 중인 김민철은 현재 부나비즈 대표, 퍼커션팩토리 토노 동인 및 뮤지컬렉터 한.결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김 씨는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추구하는 이번 공연은 전자음악과 미디어아트 어쿠스틱의 조화를 통해 색다른 사운드를 선사하는 것이 목표"라며 "라이브 연주와 가상 음악의 조합을 통해 관객에게 환경과파괴는 시의적 메시지를 청각적으로 전달할 것이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충장축제 굿즈 사고 경품도 참여하고

오늘까지 충장로 일원 사전이벤트

오는 10월 2일-6일 충장로 일원에서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린다. '충·장·발·광'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추억의 밀가루 놀이, 충장 피아아트 퍼레이드 및 감성 콘서트 등으로 채워진다.

본 행사에 앞서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재단)이 26일까지 굿즈 팝업스토어 및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충장축제 캐릭터 및 충장축제 캐치프레이즈를 활용, 총 14품목의 굿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재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댓글, 좋아요를

남기는 사전 이벤트도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20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충장프렌즈 봉제인형, 마우스패드, 규조토 코스터 및 볼펜과 인형키링을 제공하며, 기념품은 축제 기간 팝업스토어에 방문 수령하면 된다. (팝업스토어는 충장축제 기간 5·18 민주광장에서 오픈)

재단 문창현 대표이사는 "충장축제의 브랜드와 호감도를 높이는 데에는 '굿즈'의 역할이 크다"며 "소덕이, 추, 로라 등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축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세대에게 어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최근 충장축제 캐릭터 토티 1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이벤트 행사.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내 '일상 속의 가을' 기록해볼까

광주문화재단, 오늘까지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강좌 '자연관찰일기'

현장체험을 매개로 자연을 기록하는 법을 알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강좌 프로그램 일환으로 '자연관찰일기'를 마련했다.

25일과 26일(오후 4시) 2회 걸쳐 1부는 강의형, 2부는 현장체험형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가 맡는다. 1부는 일상에 초점을 맞춰 풀꽃의 풀과 꽃 등 일상에 공존하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2부는 현장 체험 위주로 야외 자연관찰 드로잉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강사인 김옥진 씨는 문화재단이 진행한 2022-2023 창의예술교육랩 '다른생명의 시선'의 랩장을 맡았으며 랩원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교구 '자연관찰 키트'를 개발한 이력이 있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이번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자연관찰일기'는 생활 속 자연 풍경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강좌는 11월 12일과 14일 오전 10시에 김미한 디지털 강사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